

책무덤으로 가는 길

사라져버린 내 책들의 추억

김우중
문학평론가

거의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도 여전히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나를 다시 찾아오라고 부르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은 기억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강원도 양구 근처의 초가집과 숲 속에 버리고 온 내 책 몇권에 대한 기억이다.

너무나 무거웠던 배낭 속의 책

1951년 5월 16일이었다. 바로 한해 전 나의 대학 입학날짜가 그날이었기에 잊혀지지도 않는다. 나는 학병출신의 우리 동료들과 함께 어느 초가집 안에서 지도를 펴놓고 길을 찾고 있었다. 중공군의 기습적인 대공세로 부대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기관총소리가 울리면서 총알이 미닫이를 뚫고 들어와 벽에 박히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기겁을 해서 뒷문을 박차고 산으로 튀기 시작했다. 문자 그대로 총알이 비오듯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너무도 가파른 산이었다. 처음에만 뛰었을 뿐이고 얼마 못 가서 나는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다. 너무 숨이 가빠지니까 목까지 막힐 지경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앞질러서 가버리고 나만 혼자 뒤에 처져서 집중사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요행히 죽지 않고 능선까지 올라가니 동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사망은 고요했다.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는 배낭을 내려 놓았다. 그렇게 기습을 받고 뛰면서도 배낭을 잊지 않은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약골이기는 하지만 이날 산언덕 달리기에서 그렇게까지 뒤쳐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배낭 때문인 것을 알았다. 그 속에는 여러권의 무거운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 다닐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이사짐 중 가장 많은 것이 책이며, 또 어떤 책은 쇠덩어리만큼이나 무겁기도 하다.

내 배낭도 그래서 특히 무거웠다. 나는 학병으로 나가면서 귀중한 책들을 한 보따리 싸들고 입대했었다. 전투를 하다가 쉴 때가 되면 냇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으리라. 그리고 그리운 부모님이나

요란한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미닫이 문을 뚫었다.
우리는 기겁을 해
산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앞질러
가버리고 나만 홀로
뒤처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거운 배낭 탓이었다.
배낭 속에는 책이
가득 들어 있었다.

친구들에게 편지도 쓰리라...

그런데 이것은 영화 속에서 가끔 나오는 장면이며, 특히 우리 분단민족의 전쟁이 무엇인지 전연 모르는 풋나기의 망상일 뿐이었다.

입대후 몇차례 이동하는 사이에 나는 대부분의 책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배낭에 소중히 보관하고 다닌 몇권만 남았다. 그

중에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과 불어 사전, 레오파르지의 《라오코온》 등이 있었다. 개성에서 서울까지 왕복 통학권을 만들고 용돈만 좀 모이면 서울까지 가서 어렵게 구해온 책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했다. 그 중에서 불어사전은 돈이 부족해서 너무 애를 먹은 것이니 버릴 수가 없었다. 《라오코온》은 나를 평론가의 길로 이끌어준 문예비평서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다.

능선까지 겨우 죽지 않고 도착한 나는 배낭을 열고 짐을 줄일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한가지도 버릴 것이 없었다.

처마 틈서리에 불어사전을 감추고

이때 또 갑자기 총소리가 가까워서 울리고 누군가가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배낭 속에서 불어사전 하나만 왼손에 들고 바른 손으로 칼빈 총을 들고 배낭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굴러 버렸다. 내 배낭은 조금 굴러 내려가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히고 구르기를 멈추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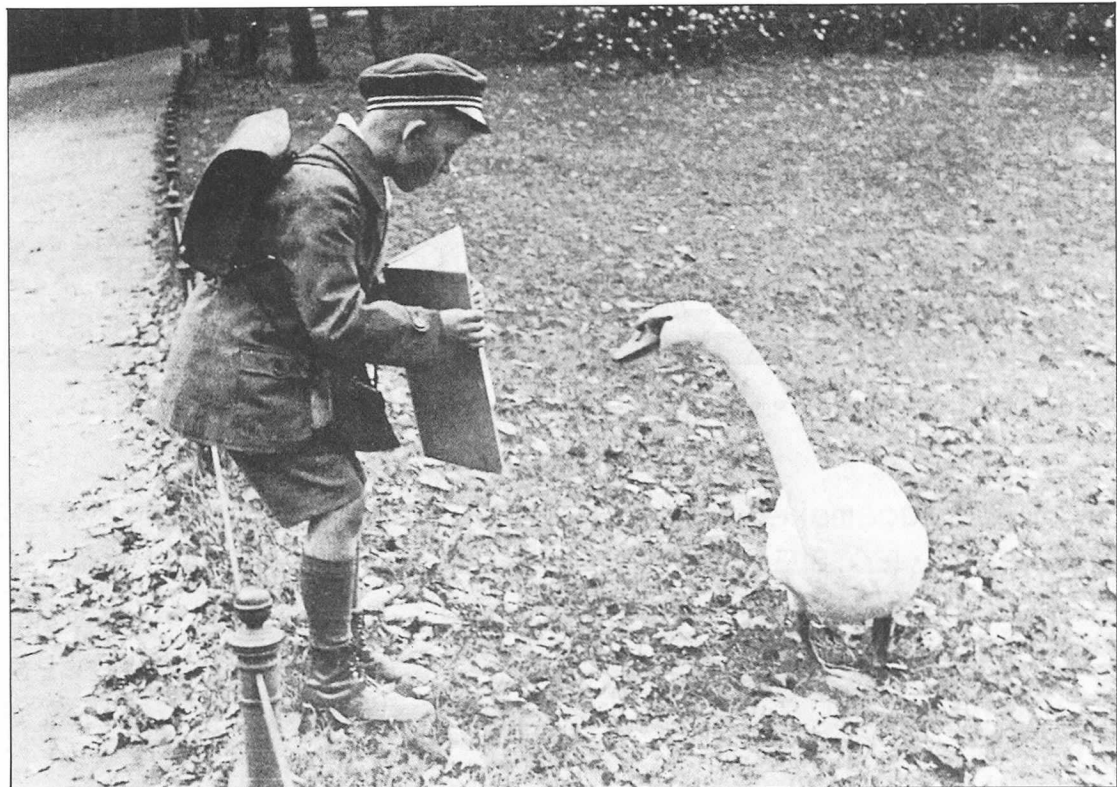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이틀후 나는 마침내 포로가 되고 말았다. 어느 외딴 초가집에 여러명의 보병들과 함께 치켜서 쓰러져 있다가 붙들리고 만 것이다.

이때 나는 불어사전을 그 초가집 처마의 틈서리에 감추어 두었다. 얼마 후에 다시 와서 꼭 찾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배낭과 함께 버린 책들도 그렇게 다시 찾으러 올 것이라고.

그러나 포로가 된 후 다시 남쪽으로 탈출해 올 때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포로된 우리들 중 대다수가 수십년동안 불귀의 몸이 되고만 것에 견주자면 1년 2개월은 물론 특급귀환이다. 그렇지만 책을 찾기에 1년 2개월도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북으로부터 탈출후 당장 책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 그대로 수백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무모한 모험을 시도해서 탈출해 온 나는, 금의환향으로 꽃다발 환영이라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곳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게 되었고, 다시 원대복귀한 뒤에는



우리 문화재 약탈과 파괴의 실상

이구열의 《한국문화재 수난사》를 읽고

반영환 · 서울신문사 논설고문 · 문화재 전문위원

사령관이 내 사정을 우연히 알게 될 때까지는 부모님을 찾으러 가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후 휴전이 되었다. 나는 군복을 물들여 입고, 복학가고, 평론가가 되고, 졸업후 얼마 뒤엔 교수가 되었다. 내 작은 셋방과 학교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기 시작했다. 그후 정년퇴임으로 교수직을 물러나면서 그동안에 모았던 소중한 책들 대부분을 아끼는 제자들에게 물려 주었다.

그런데 내가 산 속에 두고 온 그런 책이었다면 단 한권도 남에게 물려 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손자들과 책무덤에 성묘하고교과

서울로 책을 사러 가서 고서점을 온 종일 돌다가 밤시간이 되면 나는 서울역의 스템 옆에 꾸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새벽 열차를 타기도 했었다. 그럴 때면 옆에 붙어 앉은 저지 아이들 한테서 이가 옮겨 붙어 그들보다 개성까지 나를 따라오며 괴롭혔다.

그러던 학생시절이 나는 지금 무척 그립다. 그리고 산 속의 그 책들이 그립다.

그 책들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비와 바람에 삭고 흙 속에 묻혀 무명용사들처럼 비석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나는 지금도 그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해 낼 수만 있다면 소설가 앙드레 지드와 문예비평가 레오파르지가 굴러내려간 그곳에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허묘일망정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주고 싶다. 초가집의 불어사전도 비문에 함께 적어주고 싶다. 이런 책무덤을 만든다면 남들이 웃을까? 그러나 나로서는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그들은 훗날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준 가장 고마운 스승들이 아닌가?

책무덤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어린 손자 손녀들을 내 차에 태워 책무덤으로 해마다 성묘를 가면서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겪은 6.25 이야기’도 들려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권 했던듯 훨씬 부드러워지고 아이들도 더 보람있고 재미있는 성묘가 될 터이니까. ❖

요즘엔 하루에도 수백권의 신간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중에는 “이런 책이 왜 출간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책들이 적지 않다. 출판문화란 이름으로 출판을 모독하는 책들이다. 희한한 제목과 요란한 장정으로 독자를 기만하려는 상업주의가 갈수록 극성을 부린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독자의 양식이 될 양서는 나온다.

이구열의 《한국문화재수난사》는 그런 책중에 하나다. 이 책은 왜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고 당당한 책에 속한다.

이 책은 1973년 《한국문화재 비화》란 제목으로 출판돼 국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제 치하에 이 땅에서 자행되었던 우리 문화재의 약탈과 파괴의 범죄실상이 너무나 생생하고 광범위하게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미처 모르고 있었거나 막연히 짐작하고 있을 뿐이던 일제의 온갖 만행을 구체적인 당시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합방을 전후한 10년 동안 개성과 강화에서의 고려시대 고분 도굴이나 1925년을 전후한 대동강 하류의 낙랑고분 도굴, 그리고 1915년 이후 경상도 지방의 가야·신라고분도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보였다. 당시 일본인 고적 조사원조차 “도굴로 파헤쳐진 고분군의 참상은 잔인의 극치”라고 분개하고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도자기나 장신구 뿐만 아니라 일인들은 불상이나 조각품, 범종이나 석탑까지도 실어갔다. 개성의 한 절터에 남아 있던 경천사 10층 석탑(현 경북공소재)을 “고종황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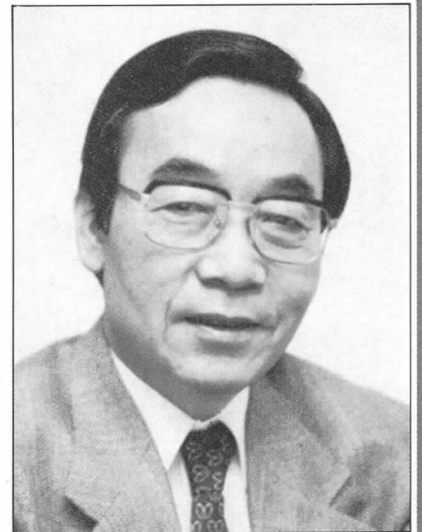
기념으로 하사했다”고 속여 일본 궁내부대신이 불법반출했다가 되돌려보낸 경위가 이 책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우리 문화재의 약탈과 수난에 대해 우리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문화재 수난사》는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웠던 역사의 현장을 조감해주면서 우리가 민족문화유산을 왜 소중히 지키고 간수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일제치하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와 6·25 전쟁중의 문화재 수난, 그리고 70년대초까지 일어났던 국보도난사건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근 100년에 걸친 우리 문화재의 수난과 비화를 집대성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 이구열씨는 신문기자로 있을 때 이원고를 집필, 서울신문에 연재했었다. 저널리스트이며 미술평론가인 저자는 자료의 철저한 고증과 확실한 증언을 토대로 이 원고를 썼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내 복원하려는 저자의 노력은 이 책의 면면에서 빛난다. “사실기록에 충실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장과 상상의 표현을 삼갔다”는 저자의 초판 후기에서도 그 점을 읽을 수 있다.

제1장 선각자의 인맥에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기간 문화의 선각자들인



반영환씨.

김정희(金正喜)·오경석(吳慶錫)·오세창(吳世昌)·고유섭(高裕燮)·송석하(宋錫夏)·전형필(全鎔弼) 6분의 평전이 소개된다. 3장 〈서양인의 수집〉은 우리 문화재의 몇 안되는 서양인 컬렉션에 대한 귀중한 자료다. 외국에 유출된 많은 우리 문화재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장 〈도굴·도난·위조품〉에서는 경주박물관에서의 모조품관 도난사건·고구려 불상 도난사건 등 해방후 중요한 문화재 도난 및 위조사건들이 추리소설처럼 흥미롭게 전개된다.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간결하고 쉬운 문체도 돋보인다.

초판이 나온지 23년만에 개정판이 나왔지만 이 책의 가치는 여전하다. 우리 문화재의 탐구와 일반의 인식이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는 아직도 10만여점의 우리 문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에서 2건의 귀중한 자료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경천사 10층석탑 약탈의 진상을 밝혀주는 1907년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와 논평, 일제 통감부시절 일인 고려자기 도굴범에 대한 판결문이다. 저자의 집념어린 추적이 아니고는 찾아내기 어려운 희귀자료이다. 이 책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수확이다. ❖

